



학교도서관에서의 교수-학습 지원 활동에 대하여

서경은*

1. 머리말

사회적 환경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환경도 변화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주입식 지식전달에 그치던 교육내용은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통한 과제해결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교사, 교과서 중심의 교육방법은 학생중심의 토론, 탐구, 체험학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고정된 교실 공간이 전부이던 교육환경은 다양화에 대응하는 개방화된 학습공간으로 바뀌었으며 단순한 지식전달자에 그치던 교사는 지식안내자(Instructional Designer)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학교도서관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의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열린교

육, 자주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동기 유발 및 창조적 적응력을 얻을 수 있게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을 매개로 한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도서관 정책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중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화”를 개혁안으로 제안한 이래 교육부에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팀이 발족되어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이후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 2월부터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 중앙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synose@hanmail.net

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1~2002년 전국 96개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자료실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사업의 성과에 따라 매년 그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에 의해 2002년에는 전국 12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자료실 시범운영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까지 포함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7월 26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수립되었다.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합방안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4대 과제는 첫째,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둘째,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셋째,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넷째,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확보 방안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홍보를 통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정보 차원의 제도화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사서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 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① 도서관 이용교육, ② 도서관 활용수업(LAI), ③ 독서지도, ④ 동아리(도서반) 운영, ⑤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 운영으로 정리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기본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 및 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2. 교수-학습 지원 활동

2.1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교육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이용 안내자료 배부 등 비정규교육과정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정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도서관에 축적되는 정보의 양과 질, 형태가 크게 변화되어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가공하여 창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해 내고, 그것을 해석 평가하여, 재배열 또는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직면해 있는 문제 상황이나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교육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강의 위주의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자주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포괄적인 정보교육의 관점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단기간에 도서관 이용 안내만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과 장기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지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도서관 활용수업(LAI)

도서관 활용수업(LAI, Library - Assisted Instruction)은 각 교과에서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활동이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모듬학습, 수행평가 과제 처리, 수업 준비 등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등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수업의 전 과정을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담당교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 ① 수업의 효율성을 증가로 인한 효과적인 학습목표 달성, ② 지식안내자로서의 교사 역할 정립, ③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④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탐색 및 이용기술 훈련, ⑤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 증진, ⑥ 독서량 및 독서 능력의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어 수업방법 혁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단위학교의 연간 교육계획서에 도서관

활용수업을 주요사항으로 반영, 시행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한편, 각종 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을 필수과정으로 실시하여 교원들의 도서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담당교사)의 역할은 과거처럼 교과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단순히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과정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동반자적 위치가 된다는 것에 협동 교수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

2.3 독서지도

독서지도는 독서를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는 교육적인 의미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는 독서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생애교육이다. 21세기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 전자매체와 TV, 영화 등 영상매체의 유혹과 과도한 대학입시 부담은 청소년을 독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매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서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독서활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근거를 둔 학년별 교과별 '권장도서' 지정 운영 등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부계획

의 수립에 앞서 먼저 학생들의 독서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제반 여건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독서교육의 내용 구성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계통성을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동아리(도서부) 운영

도서부원은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를 도와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학생들로 구성된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부는 사서교사(담당교사)와 더불어 운영의 주체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도서부원의 활동은 학교도서관의 활발한 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도서부가 자료의 대출 반납 및 도서관 제반 업무를 하다보면 동아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업무보조원의 성격만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도서부원에 대한 도서관 관리(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동아리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담당교사)는, ① 동아리 조직, ② 관리(운영) 연수 실시, ③ 업무 분장, ④ 평가 및 개선 활동 시행을 통하여 도서부원을 학교도서관의 소(小) 전문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친목활동, 체험학습 활동, 동아리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 운영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를 구축하는 목적은 이

용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도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와 교수-학습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의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행동 반경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자료의 빈곤, 사서교사(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성실한 참고봉사와 이용교육의 부재, 그리고 학교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보의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웹 페이지의 활용여부에 따라서 원거리 이용, 자료 빈곤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02년 9월 17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지수는 홍콩,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7위로, 싱가포르(13위), 일본(20위)을 앞서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보통신이 앞선 나라에서는 10대 청소년층이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 내적, 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학교도서관이긴 하지만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때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받던 정보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설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맺음말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배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도서관이 적지 않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교수-학습활동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형을 키워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중심교육이란 당면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교육을 말함이다. 이와 같은 정보활용능력의 유무에 따라 개개인의 능력이 결정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된다. 정보활용능력에 중점을 두는 교육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활동(software)은 사서교사(humanware)나 시설(hardware)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서둘러 법적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 또한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김정소. 1997. 『學校圖書館媒體센터論』.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류주형. 2003. 『도서반과 함께 꾸려 가는 학교 도서관실』.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교도서관분과.
- 서경은. 2002.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 콘텐츠 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2002.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장 연찬회 자료』. 서울, 동 교육청.
- 『엄마의 마음 : 고양시 교육문화정보지』. 2003. “우리는 독서실이 아닌 도서관을 원한다”, 7월 23일.
- 오승현,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문)
- 오승현, 2003. 『‘학교도서관’ 학교의 중심으로 육성』.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희수. 200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태 및 외국의 정책방향.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2년 7월 26일. [서울:교육행정연수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정보화 시대 청소년 문화의 실체』. 서울: 동위원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인터넷통계 월보』. [cited 2002. 10.9.] <http://stat.nic.or.kr/stat_report.html>.
- 한상완. 2001.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